

성찰하면 성장한다. 숲과 나무가 쓴 한편의 서사시

행복한 책 읽기

요나스 요나손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열린책들 펴냄)

다시, 나무를 보다 신준환 지음

나무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시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아도 그만큼 내려앉고,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그만큼 떨린다. 고요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찰의 힘이다."

평생 나무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신준환 동양대 산림 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신간 '다시, 나무를 보다'에서 나무를 이렇게 표현했다. 묵묵히 견뎌온 나무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딱 그만큼 반응하고 다시 고요해진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과 성찰은 오랜 시간 숲에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호사다.

이 책은 그야말로 숲과 나무가 쓴 한편의 서사시다. 뿌리에서 길어 낸 물이 지나가도록 나무의 물관이 길을 내어주듯, 저자는 나무와 숲의 소리가 세상에 울리도록



록 가장 아름다운 동료 역할을 해준다.

탄생과 죽음, 생성과 소멸, 고독과 어우러짐, 음과 양, 순간과 영원, 떠남과 남음, 개체와 사회, 침묵과 대화, 안과 밖. 모든 성찰은 나무를 통해 이야기된다.

우선, 나무를 허투루 보지 말라. 나무는 저울을 견딘 후 싹을 내는 저은 저리 프로그램 내장하고 있고, 씨가 집승에게 먹히더라도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장치를 찾아냈으며, 우리나라 굴참나무는 두꺼운 껍질로 산불에 맞선다.

상처도 나무의 일부다. 별레나 세균이 없으면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곤충과 새가 없으면 나무는 꽃을 피우지 씨를

맺지 못하며 바람과 물, 날짐승과 들짐승이 없으면 나무는 씨앗을 퍼뜨리지 못한다. 저자는 "생명이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의존할 때에만 자라나 꽃을 피우고 보석 같은 열매를 맺으며 후손을 키울 수 있다"고 전한다.

죽음 또한 생명에는 축복이다. 큰 나무가 쓰러진 뒤에 세상이 펼쳐지고, 공룡이 멸종한 후에 인류의 선조인 포유류가 번성할 수 있었다. 멸종은 어떤 생물에는 재앙이지만 어떤 생물에게는 축복이다. 재앙과 축복의 사슬, 이것이 생명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 들숨과 날숨, 잎이 떨어지지 않고 새잎이 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을 나무를 통해 보여준다.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순환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나무가 사람의 숨을 들이마시고, 나무의 숨을 사람이 들이마신다.

나무 앞에서는 절난 척도 하지 말라. 숲에는 똑바른 나무가 없다. 숲에 적응하라 이웃 나무의 눈치도 보고, 산림 생태계의 여건도 받아들이며 몸이 굽은 나무만 있다. 그렇게 어울렸기에 숲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직 감동하기에는 이르다. 저자는 "평생 깊은 물을 길어다가 허공에 퍼뜨리며 제 속을 비우는 나무, 얼마나 많은 물을 넘겨버렸으면 나무껍질에는 저렇게 눈물 마른 자국이 많은가? 껍질을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며 나무가 크다"고 말한다.

상처가 곧 생명이다. 저자는 "인간이 좋아하는 파툰치드라는 것은 식물이 죽는다는 뜻을 가진 물질이다. 남을 죽이기 위해 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파서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이 물질을 낸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아파서 내는 향기, 우리는 그 향기를 마시고 낫는다. <RHK·1만5000원>/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21세기 통화 전쟁=21세기 통화 전쟁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책은 중국이 경제적 G2(Group of 2)를 넘어서 통화의 G2 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새로운 통화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위안화가 제2의 국제 통화로 부상하면서 통화의 G2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엔화는 제4의 통화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유로화는 위안화에 제2의 국제 통화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3000원>

▲베르나르 울리비에의 실크로드 여행 스케치=세계 최초의 실크로드 도보 여행자 베르나르 울리비에. 62세에 그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1만 2000km를 홀로 걸었다. '나는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열정적인 여행기에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은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시각 자료가 전무하다는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두 번째 실크로드 여행을 떠났고 그들



의 감정을 달래줄 이미지를 담아 두번째 책을 펴냈다. <효형출판·1만3500원>

▲전주 비빔밥=늦쇠 대접에 고슬고슬 지는 흰밥 한 덩어리. 그 위에 올라앉은 선홍빛 육회, 아삭한 콩나물, 치자물 들인 향포묵, 밤 은행 대추 호두 잣에 이르는 오실과 가오랑색을 고루 갖춰 눈부터 사로잡는다. 오래 묵은 간장과 고추장을 섞고 비벼 먹는 전주 비빔밥이다. 비빔밥처럼 여럿이 어울려서 깊은 맛과 향이 배어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을까. 절묘한 균형과 조화미의 극치를 표현한 비빔밥 이야기를 담았다. <열린책들·1만원>

▲비밀의 문=사도세자는 아비 영조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은 광인일 뿐인가,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비운의 성군인가. 너무나 다르게 표현된 각각의 기록들 이면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며 진실은 무엇인가. 드라마 '비밀의 문'을 소설화한 이 책은 수많은 이견과 풍문, 편견의 중심에 있는 사도세자에 대해 새롭게 접근, 재해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예담·1만3000원>

▲세계의 다리를 읽다='무서운 그림' 시리즈로 잘 알려진 나카노 교코의 역사서. 세계의 다리에 얽힌 30개의 에피소드를

주제별로 엮어 소개한다. 우리 곁에 늘 존재하기에 지나치게 쉬운 풍경일 뿐인 다리에서 놀랍고, 무시무시, 때로는 애절한 사연들을 꺼내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연으로 지어지거나 무너진 다리의 이야기에서 적나라하고도 보편적인 인간세상의 드라마를 읽을 수 있다. <여전다·1만3000원>

▲내 몸에 독이 흐른다? TV에도 독이 흐른다=2014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 수상작을 모았다. 바람직한 비평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고, 제작자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또한 공공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상작들은 보는 사람도 즐겁고 만드는 사람도 신나는 TV 프로그램과 방송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준다. <한울·1만5000원>

어린이 책

▲하하호호 카페 외=행복한 우리 동네 팝업북 시리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웃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동네를 소개하는 팝업북. 알록달록 장난감 가게, 뽀뽀뽀뽀 동물 병원, 튼튼 병원, 와글와글 동물 가게, 무럭무럭 책방, 싱글빙글 슈퍼마켓, 하하호호 카페, 부릉부릉 정비소까지 8권으로 구성돼 있다. <노란우산·각 권 7500원>



▲책 도둑 토끼="못 말리는 책 도둑들 제발 잡아주세요."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욕심에 책을 훔치게 된 토끼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팔피는 결국 경찰서에 잡

혀오지만 소년 아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책을 훔친 팔피를 용서해 준다. 책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팔피의 표정을 보고 말이다. <주니어김영사·1만원>

▲알기 쉽게 통으로 읽는 한국사 1~5=각 시대별로 우리나라 역사를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으며, 각 사건들의 인과 관계까지 설명해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 왔는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1권 선사 시대부터 통일 신라, 2권 고려, 3권 조선 전기, 4권 조

선 후기, 5권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중간 예정). <각 권 1만2800~1만4800원>

▲두근두근 1학년 선생님 사로잡기=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어린이들을 위한 '두근두근 1학년 선생님 사로잡기', '두근두근 1학년 새 친구 사귀기'. 일곱 살이 가진 힘으로 학교에 적응해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알맞게 담겼다. 서툴지만 천천히, 자기만의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계절·각 권 1만500원>

영감님이 전해주는 유쾌한 메시지

굵직한 세계사의 많은 사건들을 얘기해 줄 때는 늘어 빠졌지만 에너지가 팔팔한 이 영감님과 자신도 모르게 동행하게 된다. 그만큼 기상천외하면서 어처구니없고 박장대소하게 되는 유쾌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백 세 노인은 행복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조실부모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며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끌려가 거세까지 당하고 투옥 되는가 하면 수용소에 갇혀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사선을 넘나들었다. 그렇다고 노년이라고 해서 모진 풍파가 찾아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탈출이 노인의 철학과 삶 자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과 영화(남아, 그 강을-)의 주인공은 모두 노인이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두 장르의 문화는 우리에게 한 기다의 힐링이다. 책이나 영화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국 각자의 삶과 행복이라는 것이다. 아무도 이 진귀한 삶과 행복을 억누를 수는 없다.

노인들의 삶이란 구차할 수도 있겠으나 생각하기 나름이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노인은 노인이다. 일단 늙었으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나이에 기발한 몸짓으로 도전해서 세계사에 풍덩 뛰어들어 노년의 관념을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더욱이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인공인 알란처럼 양로원에서 창문 넘어 도망은 못 칠지라도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를테면, 노트북 들고 고즈넉한 사찰에 가서 원고를 한 달만 써보기, 흑인처럼 머리를 빼빼빼글 뽀는 채 남미 여행길에 올라 보기, 자신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영아 위탁해보기, 장이 넓은 바닷가 찻집에서 일주일 간 알바해보기 등 빼곡히 적을 새 수첩이 꿈틀댄다면 바로 실천해볼만하다. 유쾌한 삶의 해피엔딩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렸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 당선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각종 인쇄물
- 전단지
- 상패
- 현수막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상패
- 전단지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 Tel. (061)471-1717~1718 | Fax. (061)471-1719 | E-mail. ansqudjtjs12@hanmail.net